



## 映畫監督 출신 發明企業人

### 東進開發 柳 東 日 사장



〈柳 東 日 사장〉

特異한 前力을 가진 發明企業人이라면 東進開發의 柳東日 사장이 당연 첫 손가락에 꼽힌다. 柳사장은 지난날 映畫監督·시나리오 作家·노랫말 作詞家등을 지낸 재주꾼.

發明 20여년동안 柳사장이 發明한 것은 1백50여 가지. 그중에서 自動車의 헤드라이트 自動調節장치와 歷史日記 그리고 증기압력솔등이 대표적인 發明品이다.

세계 9개국에 特許가 出願된 헤드라이트 光線 自動調節장치는 柳사장이 가장 자랑하는 發明品으로 지난 4월 드디어 美國에서 特許登

録을 받았다. 柳사장은 이 發明으로 85년 特許廳長賞과 86년 商工部長官賞을 받는 榮光도 차지한 바 있다.

이 획기적인 發明品은 그가 車를 직접 운전하며 대관령 고개를 넘다가 우연히 목격한 헤드라이트로 인한 사고에서 着案되었다.

순간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를 發明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歷史日記도 柳사장의 創意성과 끈기가 돋보이는 發明品이다. 세계 최초의 發明인 이 歷史日記는 資料蒐集에만도 10년이 걸렸다. 그 결과 歷史日記는 1년 3백65일 어느 페이지를 펼쳐봐도 그날의 歷史가 기록되어 있다.

柳사장의 삶은 온통 피와 땀과 努力의연 아무것도 없다.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최전방의 참호속에서 陣中日記를 쓰기도 했다. 이때 쓴 陣中日記는 國防部 주최 현장 전국 장병 手記모집에 當選되었다.

제대후 그가 뛰어난 곳은 映畫界. 助監督을 거쳐 監督을 하며 시

나리오도 썼다. 映畫의 代表作은 「저강은 알고있다」로 그는 이 映畫의 主題歌도 직접 作詞했다.

柳사장이 20여년동안 몸담았던 映畫界를 떠난것은 어릴적부터 키워온 發明人의 꿈을 펼쳐보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그는 많은 職業중에서도 發明人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柳사장이 기대를 거는 發明品은 초보운전자를 위한 「安全標識板」과 「엑셀러레이터 겸용 브레이크 장치」.

安全標識板은 중태의 차량들이 불규칙하게 초보 및 오너드라이버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것에서 착안, 美的 효과를 덧붙이고 夜光色으로 印刷하여 야간의 安全性도 높였다.

어느사이 半白의 柳東日사장. 그가 걸어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指向하는 人間的인 자세와 意志는 發明企業人이라는 메추리 이상의 가치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

柳사장의 生活은 發明, 그것만이 모두이다. (〇)